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이종휘 전화: 880-5276, 이메일: whdgnl326@snu.ac.kr

2025. 2. 12.(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한국 최대 서양 고문헌 소장기관으로 귀중한 서양 고문헌을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고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서양 고문헌으로의 초대: 플라톤에서 괴테까지’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정관 1층 관정갤러리 앞에서

진행되며,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일반인 모두 관람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서양 고문헌 단독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최대 규모의 서양 고문헌 소장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한국에서 서양 고문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다. 서양에서 편찬된 문헌 중 1900년 이전 인쇄되거나 필사된 문헌을 ‘서양 고문헌’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University of Louisiana) 등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고서 기준이다. 이와 같은 시대 기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1900년대 이전 편찬된 서양 고문헌을 42,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언어별 구성을 보면, 독문본이 19,765점으로 가장 많으며, 영문본 14,206점, 불문본 6,295점이 뒤를 잇는다. 이외에도 라틴어본 1,035점, 이탈리아어본 488점 등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희귀 서양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특별전에서는 소장 서양 고문헌 중 플라톤의 『국가』(16세기 판본), 루소의 『에밀』 초판본에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장 중인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초판본, 괴테의 『파우스트』(19세기 판본)에 이르기까지 그간 전면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문헌 110여 점이 출품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출처 표기의 기준이 되는 고전문헌학자 임마누엘 베커의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초판본, 토마스 칼라일이 번역하여 영미권에 소개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영문 초판본,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정에 나타난 코네티컷 양키』 초판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사시의 아버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18세기 판본),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 단테의 『신곡』(19세기 판본), 기독교 서사시의 대가 밀턴의 『실낙원』(18세기 판본) 등 서양 10여 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걸작도 희귀 고문헌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장 중인 서양 근대 최고의 백과사전이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된 디드로(Denis Diderot)와 달랑베르(Jean Le Rond d' Alembert) 편찬 『백과전서』 초판본을 전시한다. 1751년부터 1772년까지 간행된 이 백과전서는 약 4,300질의 원본이 제작되었으며, 그 후 1789년까지 약 40,000질의 해적본이 유통되었다. 출판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다. 계몽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책의 집필에는 디드로와 달랑베르 외에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이 참여하였다.

근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서양 고문헌 여럿 선보여

□ 중앙도서관은 러시아, 미국, 영국, 헝가리 등 여러 국가에서 출판된 한국 관계 서양 고문헌을 130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 그중 헝가리 의사의 여행기 『동아시아에서의 2년』(1911)에는 1908년 헝가리 해군 군의관 데쵸 보조끼(Dezső Bozóky, 1871-1957)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군함을 타고 한국을 방문해 서울 경복궁, 남산, 인천 제물포, 부산 등지에서 촬영한 33점의 사진이 담겨있다. 이 사진들은 전통 의복을 입은 여성들의 일상 장면, 경복궁 입구에서 양복과 중절모를 쓴 남성들이 궁궐로 드나드는 모습, 부산 해변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 등 당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이다. 대한제국 말기 한국 사회의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는 순간을 생생히 포착한다. 이 작품은 일본 식민지화 직전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희귀한 시각 자료로 평가된다.

□ 또한 영국의 여성 탐험가이자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4년부터 189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필한 『한국과 그 이웃들』을 전시한다. 해당 자료는 한국의 종교, 민속, 의복, 음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및 청일전쟁 시기의 정세 기록, 양반 계층과 서민 생활의 대비, 기생 문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찰, 무속 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한 분석, 고종과 명성황후를 여러 차례 만난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작품은 당시 서양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문화와 사회상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 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두 자료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함께 마련된 액자 전시 공간을 통해 두 작품에 실린 일부 사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 러시아 최초 노한사전 『러시아-한국 사전 초본』(1874),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한반도 상황을 톺아보아 보고한 미국기독교연합평의회 발간 『한국의 상황』(1919), 1892년 발간된 한국 최초 영문 잡지 『한국 보고서』 등이 소장되어 있다. 근대 한국어와 외국어 연구의 귀중한 기초 자료인 영국 출신 외교관 제임스 스코트(James Scott)의 『언문말책』(1887)과 『영한대역사전』(1891)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실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20세기 초 서양인의 눈에 과연 어떻게 보였는지, 한국의 문화가 서구인에게 어떻게 수용, 전파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한다.

□ 한편 한국 최초의 서양 문학 번역서인 『턴로력당』도 이번 전시에 출품된다. 이 책은 1895년,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이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1678)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의 한국어 선생 이창직의 교열을 받아 간행한 것이다. 책 속에는 김준근 화백이 그린 42점의 섬세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문헌은 서양 문학의 한국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개인 문고 속 서양서: 신용하 문고와 슈클라·오세경 문고 소개

□ 신용하 명예교수의 기증 문헌 8,300여 점 중 1900년 이전 출판된 서양 고문헌은 1,000점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 프랑스 혁명 이전에 출판된 루소의 전집(18세기 판본)과 오귀스트 콩트의 『실증 철학 강의』(19세기 판본), 로크의 『정부론』(18세기 판본) 등 사회학과 관계된 희귀본 서양 고서를 선보인다.

□ 슈클라·오세경 문고는 하버드 치과대학장을 역임한 제럴드 슈클라 박사와 서울대 약학대학 출신 오세경 박사가 기증한 4,676점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서양 의학 분야의 고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찰스 다윈 전집(19세기 판본),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16세기 판본)과 『내과적 질환』(16세기 판본) 등 의학과 과학 관계 서양 고문헌을 선별해 선보인다.

전시 기간 내내 일반인 무료 개방

□ 이번 전시는 2023년 3월 <신입생 비상전 飛上展>을 시작으로 출발한, 중앙도서관 기록유산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전시 기획의 네 번째 결실이다. 이번 전시는 일반인 관람이 가능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전시 기간인 2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내내 개방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귀중 고도서를 일반인에게 전면 공개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작년 2024년 열린 심약 이승녕 기념전 이후로 두 번째이다.

□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서양 고문헌의 세계를 경험하고 동양의 고문헌과 확연히 다른 서양 고문헌만의 고유한 특징과 아름다움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전시 세션별 개요

No.	세션	주요 내용
1	서양 고문헌의 시대 기준	1900년 이전에 인쇄되거나 필사된 문헌을 서양 고문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소개한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편찬된 귀중본 390점의 구성과 시대별 분포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2	고문헌으로 만나는 서양사상의 빛나는 순간들	플라톤의 『국가』(16세기 판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19세기 판본),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18세기 판본) 등 서양 사상의 주요 전환점을 고문헌을 통해 재구성한다.

3	<p>고문헌으로 만나는 서양문학의 거장들</p> <p>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19세기 판본), 단테의 『신곡』(19세기 판본), 토마스 칼라일이 번역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영문 초판본,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정에 나타난 코네티컷 양키』 초판본 등 서양 문학의 대표 작품들을 전시한다.</p>
4	<p>서양 고문헌 속 대한민국</p> <p>『동아시아에서의 2년』(1911), 『한국의 상황』(1919), 『러시아-한국 사전 초본』(1874), 『언문말책』(1887), 『영한대역사전』(1891) 등 근대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헌을 통해 서구인이 바라본 한국을 조명한다.</p>
5	<p>신용하 문고 속 서양 고문헌</p> <p>신용하 문고의 1,000점 이상 달하는 서양 고문헌 중 루소의 『전집』(1782), 콩트의 『실증 철학 강의』(1864), 로크의 『정부론』(1772) 등 사회과학과 관계된 희귀본을 선보인다.</p>
6	<p>슈클라·오세경 문고 속 서양 고문헌</p> <p>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소장된 희귀 의학 고문헌들을 선보인다.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1567), 『내과적 질환』(1577)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서양 의학 서적의 실물 자료를 전시한다.</p>
7	<p>서울대학교의 서양 고문헌 수집</p> <p>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통해 중앙도서관의 서양 고문헌 수집 역사를 조명한다. 경성제국대학의 『양서분류통계표』, 서울대학교 출범 이후 신규 입수한 서양 고문헌 등을 소개하며 어떻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국내 최대의 서양 고문헌 소장기관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짚어본다.</p>
8	<p>고전, 영화로 재탄생하다.</p> <p>서양의 고전 문학 작품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영화라는 새로운 시각매체를 통해 재해석된 모습을 보여준다. “올리버 트위스트”(1922), “허클베리 핀의 모험”(1931), “주홍글씨”(1934), “안나 카레니나”(1935), “로미오와 줄리엣”(1936) 등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고전 작품의 퍼블릭 도메인 영화 포스터들을 빔프로젝터를 통해 송출한다.</p>

□ 전시 문의: 고문헌자료실(02-880-5276)

* 붙임: 1. 대표 전시자료 목록

1. 대표 전시자료 목록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	『턴로력명』	1895	존 번연의 《The Pilgrim's Progress》을 번역한 한국 최초의 서양 문학 번역서이다. 소장본은 1895년 초판본이다. 조선의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 부부가 번역하고, 그의 한국어 선생인 이창직의 교열을 받아 간행하였다. 화가 김준근이 그린 42점의 섬세한 한국식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2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1854	기독교 신앙과 순례자의 여정을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 존 번연의 작품이다. 인간 구원의 길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알레고리 소설로 종교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소장본은 1854년 런던에서 출판된 판본이며 초판은 1678년에 발행되었다.
3	『동아시아에서의 2년 Ket ev Keletazsiaban』	1911	헝가리 출신의 의사 보조끼 데쵸가 동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현재 루마니아의 오라데라인 너지바러드(Nagyvárad)에서 출간하였다. 1권은 중국과 한국 여행기, 2권은 일본 여행기이다. 1908년 한국 내 제물포, 서울, 부산 등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33매 실려 있어 근대 한국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4	『한국의 상황 The Korean Situation』	1919	미국기독교연합평의회(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에서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편집한 소책자로, 당시 일본 통치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린 자료이다.
5	『러시아-한국 사전 초본 Опы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	1874	'더션책이(조선책)'라는 한글이 함께 적혀 있는 노한사전(露韓辭典)이다. 187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된 최초의 노한사전으로, 1880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언』 보다도 먼저 편찬되었다. 3,369개의 러시아 단어에 대한 한국어 뜻풀이와 발음이 표기되어 있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6	『한국 보고서 The Korean Repository』	1892- 1898	1892년 1월 감리교 선교사들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종교, 언어 등 다양한 주제를 외국인의 시선에서 다루고 있다. 전시된 페이지는 한국의 놀이문화 중 하나인 ‘장기’를 ‘한국판 체스(Korean Chess)’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7	『언문말책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1887	1887년 영국 출신 외교관 제임스 스코트가 출간한 한국어 학습서로, 서양인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 자료 중 하나이다. 한국인과의 대화를 위한 회화 학습서였지만 전반부에서 한국어 문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초석을 마련한 자료로 평가된다.
8	『영한대역사전 English-Corean Dictionary』	1891	언더우드의 『영한사전』(1890)에 이어 출간된 두 번째 영한사전이다. 본 도서를 발행한 성공회 출판부는 서울 낙동에 자리했던 활판소로 영어와 한문, 한글 세 가지 언어로 인쇄출판이 가능한 곳이었다. 본 사전은 그가 4년 전에 출간한 『언문말책』의 후속 작업이자 자매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9	『한국과 그 이웃들 Korea and her neighbours』	1898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기행문이다. 소장본은 1898년 런던에서 발행한 판본이며 초판은 1897년 미국에서 발행되었다. 출간 당시 영국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로 꼽혔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여행경로가 표기된 지도, 섬세한 삽화, 사진 등이 40여 개 수록되어 있다.
10	『키케로 전집 M.Tulli Ciceronis De officiis libri tres』	1581	당시에 전승되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작품(편지, 단편 포함) 모두를 갈리아의 궁정 희랍 문(현)학 담당 교수 디오니시우스 람비누스가 교열, 편집하고 주석을 붙여서 출간하였다. 총 9권 중 8권을 소장하고 있다.
11	『플라톤 전집 ΠΛΑΤΩΝΟΣ ΑΠΑΝΤΑ ΤΑ ΣΩΖΟΜΕΝΑ』	1578	헨리쿠스 스테파누스가 플라톤 작품의 희랍어 텍스트와 요안네스 세라누스(Ioannes Serranus)의 라틴어 번역을 3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플라톤 작품의 출처를 표기할 때 이 책(스테파누스 쪽수, Stephanus pagination)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2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Aristoteles Graece』	1831	고전문헌학자 임마누엘 베커가 당시 전승되던 필사본을 교열 편집하여 2권으로 펴낸 아리스토텔레스 희랍어 원전 텍스트 비평본이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출처를 표기할 때 이 책의 쪽수인 베커 번호(Bekker Number)를 기준으로 삼는다.
13	『마키아벨리 저작집 Opere di Nic. Machiavelli, cittadino e segretario Fiorentino』	1726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작품들을 모은 책으로, 그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어 마키아벨리의 출신 배경이나 직책, 상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피렌체 시민이자 비서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이야기,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이신 교황 클레멘스 7세께 이 책을 바칩니다.”
14	『데카르트 전집 (Euvres de Descartes)』	1860	데카르트의 3가지 주요 저작들을 하나로 모아 출간한 책이다. 확실한 앎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절대 확실한 진리로 발견하게 된다.
15	『리바이어던 Leviathan』	1886	홉스가 1651년에 출간한 이 책은 근대 정치철학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장본은 1886년 런던에서 발행된 판본이다. 인간 본성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규정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주권자(리바이어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베히모스 : 1640년부터 1660년까지의 영국 내전 역사 Behemoth』	1680	이 책에서 홉스는 영국 내전을 철학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내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베히모스란 성경에 나오는 거대하고 강력한 신화적인 존재로서, 내전의 거대한 규모와 그로 인해 초래된 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7	『말름스베리의 토마스 홉스의 논문집 Tracts of Mr. Thomas Hobbs of Malmsbury』	1682	홉스의 철학적, 정치적 사상을 담은 논문들을 모은 책이다. 그는 인간 본성과 사회 계약, 그리고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의 대표작 《리바이어던》과 연결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들은 홉스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18	『루이 모레리 백과사전 Le grand dictionnaire historique』	1732	본 텍스트 6권, 부록 2권, 증보부록 2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백과사전이다. 신과 영웅에 대한 고대 이교도의 신화적 역사를 요약하여 담고 있으며, 족장들, 황제들, 왕들, 저명한 왕자들, 고대 및 현대 작가들의 삶과 중요한 업적들을 다루고 있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19	『디드로와 달랑베르 백과사전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1751-1772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으로 총 35권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 과학, 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시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	『정부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772	이 책은 자연권과 정부 존립의 기반에 대해 논의하는 로크의 정치철학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로크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계약적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권력 분립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에밀 혹은 교육에 대하여 Émile, ou, De l'éducation』	1762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초판본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가 귀중한 문헌이다. 루소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존중하는 이상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루소는 주인공 에밀이 유아기부터 성년기까지 성장해 가는 모습의 묘사를 통해 아이를 자연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루소 전집 Collection complete des oeuvres de J.J. Rousseau, citoyen de Geneve』	1782	루소의 『고백록』, 『사회계약론』, 『에밀 혹은 교육에 대하여』 등의 주요 저서와 함께 그가 정치나 철학, 음악과 관련하여 쓴 다수의 글들과 서신들을 모아 17권으로 출간한 광대한 전집이다. 루소 사후 그의 사상과 작품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23	『실천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abgefasst』	1798	이 책은 칸트가 인간의 행동, 성격, 사고방식을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저작이다. 칸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존재로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실천 철학과 인간학의 접점을 다루고 있다.
24	『아서왕 궁정에 나타난 코네티컷 양키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1889	마크 트웨인(1835-1910)의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는 1889년에 출간된 풍자 소설로, 미국 현대 문학의 걸작 중 하나이다. 시간 여행이라는 설정을 통해 중세 아서왕 시대를 배경으로 현대 기술과 사상을 접목시켜 당시 사회와 권위를 비판하였다.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889년 뉴욕의 Charles L. Webster & Co.에서 출간된 초판본이다. 미국의 대표적 삽화가인 비어드(Daniel Beard)의 삽화가 수록되어 초판만의 독창적 가치를 더한다.
25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	1824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청년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그린 교육소설이다.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문필가 토머스 칼라일(1795-1881)이 번역한 1824년 영어 초판본으로, 괴테 문학이 영어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해당 초판본은 괴테 문학의 세계적 확산과 칼라일의 학문적 업적을 함께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큰 귀중본이다.

연번	서명	발간년도	내용
26	『일리아스 The Iliad of Homer』	1777	《일리아스》는 호메로스의 고대 그리스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아킬레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겪는 전투와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777년 출간된 소형 판본으로 당시 출판 기술의 발전과 문학 보급의 확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27	『신곡 La Divine comédie』	1854-1857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의 《신곡(La Divine Comédie)》은 중세 이탈리아 문학의 걸작으로, 인간의 구속을 주제로 한 서사시이다. 지옥(L'enfer), 연옥(Le purgatoire), 천국(Le Paradis)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인공 단테가 신비적인 여행을 통해 신과의 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본 문헌은 1854-1857년 파리의 Amyot 출판사에서 출간된 판본이다.
28	『실낙원 Paradise lost : a poem in twelve books』	1778	《Paradise Lost: A Poem in Twelve Books》 밀턴의 《실낙원》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그린 영국 문학의 대표적 서사시이다. 이 판본은 1778년 런던에서 출간된 판본으로, 당시 책에 삽화가 수록되는 일이 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삽화를 더해 작품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